계는 단순한 종번宗藩의 단계를 넘어서는 '혈맹血盟'의 차원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나아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大報壇을 세우고, 송시열宋時烈 등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이미 망해 없는 명의 은혜를 추념하고자 한 배경에도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의 참전이 남긴 '은혜'가 자리잡고 있었다. 나아가 오늘날 중국이 임진왜란을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항왜원조抗倭援朝'를 운운하는 것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보인 존명尊明, 존화의식尊華意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세부 연구 항목에 들어가서는 '조승훈祖承訓 원군의 패전과 심유경沈惟敬의 등용 · 명군의 본격적인 참전과 평양전투 승리 · 강화 추진의 배경 · 명군 전력의 약세 · 참전과 전략 목표의 달성 · 강화에 대한 조선의 반응과 강화의 파탄 과정 · 구원군과 점령군의 양면성 · 민폐와 접촉, 그리고 유출 · 명 문물의 유입과 문화 접변' 등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다루고, 맺음말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명군의 참전을 계기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차원의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다. 명은 일단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에 참전했다. 하지만 당시 내란을 진압하고 '여왜공모설麗倭共謀說' 등의 의혹을 해소하는 문제 때문에 명군의 조선 진입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 조승훈이 이끈 명군은 미약한 전력으로 일본군을 공격했다가 참패했다. 이후 명군은 포병이 중심이 된 강남江南 출신의 남병南兵을 조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명군 지휘부는 남병을 조선까지 투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일본군의 전진을 억제하기 위해 심유경을 활용했다. 심유경은 고니시小西行長와의 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끌어내고 일본군을 평양 선에 묶어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593년 1월 이여송李如松의 명군이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왜란 전체의 전세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승전을 계기로 일본군은 후퇴하게 되고 조선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추격하던 이여송군이 벽제碧蹄전투에서 패하면서 상황은 다시 전변했다. 명군의 기세는 꺾이고 그 지휘부는 결전 대신 협상을 통해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들이 조선도 그 정책에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조선의 주권은 심각히 침해되었다. 작전권이 넘어간 것은 물론 명군이 일본군을 에스코트해 주는 상황이 나타났다. 싸움을 포기한 명군이 그저 일본군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장기 주둔에 들어가자 민폐는 격증했다. '명군은 참빗, 왜군은 얼레빗'이라는 속언이 떠도는 와중에 조선 민중의 고통은 날로 더해갔다.

조선은 강화 협상에 반대했지만 명군에 이지해 전쟁을 치르는 상항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한편 명과 일본의 요구 조건이 너무 현격하여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다. 4년 가까운 협상을 통해 '책봉' 말고는 얻은 것이 없음에 분노한 히데요시는 다시 정유재란丁酉再亂을 도발했다. 재란이 일어나자 명의 협상론자들은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명은 다시 대군을 조선에 투입하여 일본군과 싸웠지만 역시 결전 의지는 실종된 상태이고, '양전음화陽戰陰和'가 그 본심이었다.

명군이 조선에 남긴 '빛과 그림자'는 극명했다. 평양전투를 계기로 조선을 복국시키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벽제전투 이후 강화 협상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조선의 주권은 심하게 침해되었다. 작전권의 박탈, 민폐의 만연과 함께 결혼 · 동거 · 투탁 등의 형태로 조선 백성과 명군 사이의 접촉이 잦았다. 명군의 철수와 함께 많은 조선 백성이 명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전란 기간 명의 문물이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양국 사이에 문화 접변이 발생하기도 했다. 명군 지휘부는 조선의 숭문주의崇文主義를 비판하고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조선의 전후 복구 방향을 택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다.

명군이 남긴 빛과 그림자가 엄연함에도 선조를 비롯한 조선의 지배층은 명군의 참전과 원조를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 숭앙하고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이자 부담'으로 인식했다. 그 와중에 명에 대한 '모화의식慕華意識'은 더욱 높아졌다. 조선 지배층 내부의 정치적 의도까지 개재된 숭명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왜란 이후 조선의 대외적 상상력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륙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던 명청교체明淸交替라는 근본적인 격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심하전투深河戰鬪(1619), 인조반정仁祖反正(1623), 정묘호란丁卯胡亂(1627), 병자호란丙子胡亂(1636)으로 점철되는 일련의 격동과 비극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어났다.

요컨대 임진왜란 시기 명은 조선에 참전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았지만 조선을 '가장 충순忠順한 번방藩邦'으로 순치시킬 수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의 발생과 명군의 참전은 병자호란을 예비하는 원인遠因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주제 발표는 4시 30분까지로 된 예정시간을 넘겨 5시경에 끝났고 이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사회는 고려대 명예교수인 유한성 부회장이 맡아 발표자 전원과 함께 임했고, 지정토론자는 고려대 이헌창 교수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의 이상훈 기조실장이 맡아 하였다. <사진 · 글 權五焄>

▲ 한명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본부석. 앞줄 왼쪽부터 권영익 고문, 이종찬 전국정원장, 박권흠 회장, 최열곤 전서울시교육감, 그 다음 건너가 권상석 이사이다

국문판 전산 · 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를 상시운영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입록 · 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① 이 족보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며 언제든지 추가 등재와 입록이 가능합니다. 이 족보의 주기註記는 안동권씨인 각자의 작은 행장行狀 또는 약력略歷으로 운용되어 영원한 가족사家族史로 유전됩니다.
② 소정의 수단비, 즉 등재비와 함께 소정의 수단용지에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 · 증보 신청하시면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됩니다.
③ 각자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출생 · 사망 · 거주 · 결혼 · 이혼 · 졸업 · 학위취득 · 직업 · 지위 · 직위 · 경력 등이 주요 사안별 기준에 따라 등재되어 각자의 간추린 개인사個人史가 망라됩니다.
④ 수시로 수단을 받아 신규 입록하거나 기록을 보충 ·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연도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상에 업데이트된 원판이 올라가 운용됩니다.
⑤ 이처럼 추록 · 보완 · 변경된 내용은 나중에 대동보나 각종 파보를 발간할 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 안동권씨 각급 문중별 파보派譜 · 계보系譜와 가승家乘도 발간해드립니다

① 안동권씨 한글판한자병기전산대동세보는 그 전산판이 완비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② 이 원판에 변동사항과 새로운 입록사항을 추가하여 뽑아내면 해당 계파의 파보나 계보 또는 가승이 됩니다.
③ 이렇게 계파보를 제작 · 발간할 경우 전체 전산원판에의 입록 · 등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산등록 수단비를 받지 않습니다.
④ 파보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소譜所를 설치 · 운영할 것이 없이 모든 일이 종보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막대한 보소비용이 절감됩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